

2025년 7월 7일(월) 정기

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7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부산광역시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출산보육과 출산정책팀

유 형 : 홍보

사진유무 : 사진있음 ■ 사진없음 □

과장	석정순	051-888-1560
팀장	이정민	051-888-1563
담당자	하명준	051-888-1566

부산시, 느린우체통 통해 사랑·건강·행복 담은 엽서 발송

- ◆ '내 가족에게 보내는 느린우체통' 엽서 이달 발송... 지난해 12월 진행된 '아이가 행복합니다. 부산' 어린이 그림공모전 전시회의 부대행사
- ◆ 접수 6개월 후 발송되는 것으로, 손 편지의 감성과 '느림'을 통한 특별한 추억 남겨... 엽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랑(36%), 건강(24%), 행복(18%)
- ◆ 시, 하반기 ▲부산어린이박람회 ▲제2회 '아이가 행복합니다. 부산' ▲다자녀가정 아카데미 등 가족, 청소년,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 펼칠 계획

□ 부산시(시장 박형준)는 지난해 12월 운영한 '내 가족에게 보내는 느린우체통'에 접수된 엽서를 이달 발송한다고 밝혔다.

- 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연결 통로에서 '아이가 행복합니다. 부산' 어린이 그림공모전 수상작 전시회의 부대행사로 느린우체통을 통한 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.
- 행사에는 시청과 도시철도를 오가는 시민, 시청 들락날락을 이용하는 아이들, 국내 여행객과 해외 유학생 등이 참여했다.

□ '느린우체통'은 편지를 넣으면 며칠 내로 전달되는 일반우체통과는 달리, 6개월 후에 적어둔 주소로 발송되는 특별한 우체통이다. '빠름'에 익숙했던 시민과 아이들이 손 편지의 감성과 '느림'을 통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.

-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즉시 발송에 익숙한 청소년과 아이들은 발송에 6개월이나 걸리는 느린우체통에 대해 신기해했다.
- 참여자들은 평소 손 편지를 보낼 일이 많이 없기에 볼펜 자국이 번지는 등 서툰 솜씨를 보였지만, 정성스럽게 글과 그림으로 엽서를 꾸미고 받는이의 주소를 손수 적어 우체통에 넣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.

- **엽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▲사랑, 36퍼센트(%) ▲건강, 24퍼센트(%) ▲행복, 18퍼센트(%)였으며, ▲가족, 7퍼센트(%) ▲공부, 6퍼센트(%) ▲취업, 5퍼센트(%) 등이 뒤를 이었다.**
 - 사랑하는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에게 쓴 사랑과 감사의 인사, 밝고 힘찬 응원이 담긴 그날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할 예정이다.
- **한편, 시는 하반기에 ▲부산어린이박람회(8월) ▲시민건강박람회(9월) ▲제30회 금련산축제(9월) ▲제2회 '아이가 행복입니다. 부산'(10월) ▲다자녀가정 아카데미(10월) 등 가족, 청소년, 어린이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.**
- **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지난해 시민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아 느린우체통에 넣은 진심 어린 마음이 잘 전달되길 기대한다” 라며, “우리시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「당신처럼 애지중지」 등 다양한 결혼, 출산,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, 올해 4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.8퍼센트(%)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. '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'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 라고 전했다.**



